

대행 스님

우리의 차원이 높아져야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 있다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불사음계이니 일체의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겠습니까?

불망어계이니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불음주계이니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않으며 자기와 남을 위해서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이 오계를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모릅니다. 이 "불살생계이니" 한 것은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업이나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항상 관하고 하십시오. 관하고 하시게 되면 그 살은 약이 되고 그 혼은, 즉 말하자면 환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진짜 살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러죠. 공생 공심 공체 또는 공용 공식 한다고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도 다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용하고 바로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 가지고도 지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들을, 즉 말하자면 미생물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라는 것은 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불살생계이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남을 죽이면 꼭 내가 죽는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남을 해하면 내가 해해진다. 이게 질서 정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한마음으로 공심으로서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을 서로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공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심으로 사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과 의식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의식이, 생명이 어째서 내가 아니겠습니까. 다 나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물 한 컵을 먹고 빵 하나를 먹어도 같이 먹는 것이고 또는 잠을 자도 같이 자는 것이고 또 움죽거리는 것도 같이 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체고요. 그리고 공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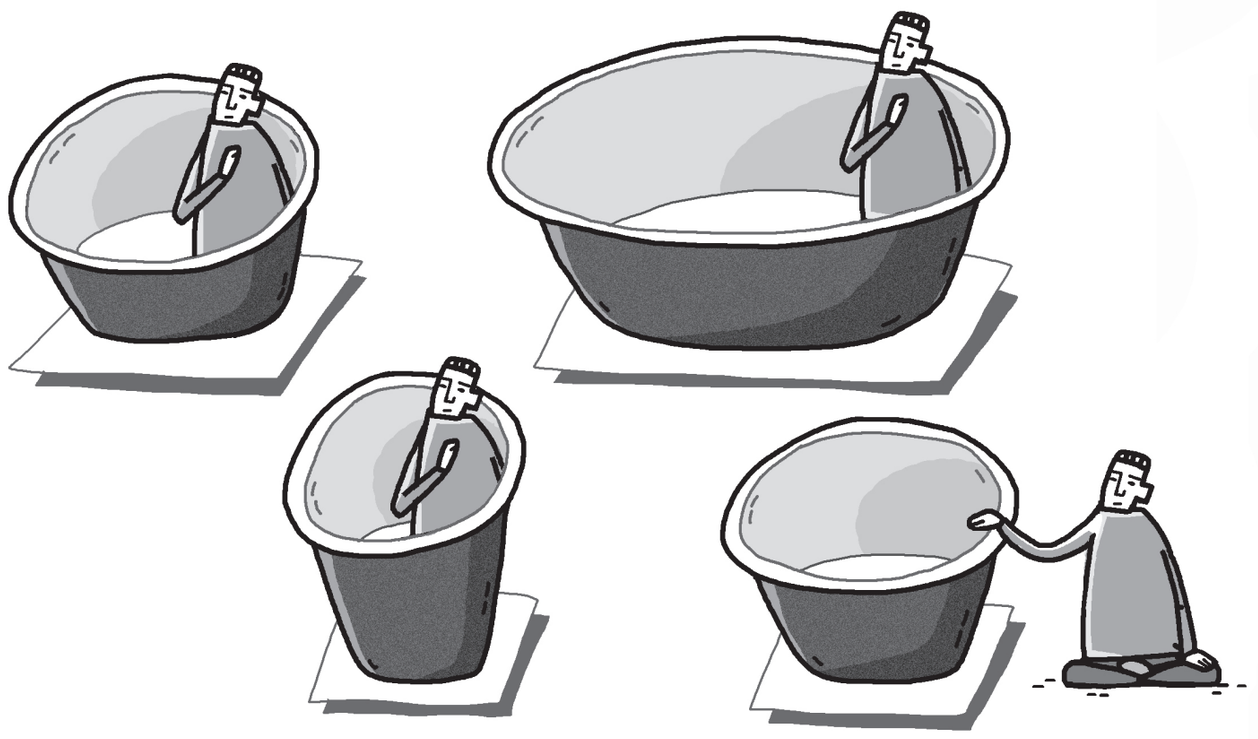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는 오늘 저녁에 빵을 먹고 딴 집은 큰 좋은 요리를 먹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좋은 요리를 먹는 거보다 낫습니다. 그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내 분수를 지키고 내게 없는 남의 거를 먹으려고 해서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분수대로,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마음 편안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불사음계이니 일체의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청정케 하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 지금 부인을 하나도 모시기 어렵습니다. 애들하고 부인 하나하고 자기하고 살기도 상당히, 여자나 남자나 그건 똑같습니다. 다 어려운 처진데 그거를 하나 둘 해 놓고 셋 해 놔 보세요. 얼마나 지옥고를 받아야 할는지 아마 그 사람사람이 다 지옥일 겁니다. 사는 게 지옥이죠. 한 철 간단하게 때울 거를 말입니다.

우리 인생 한 철이 긴 줄 아시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 이 초가 몸뚱이라면 이 불은 생명이며 타는 건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이 점점 자기 몸을 태워 가면서 자기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없어지면서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늙고 병들고 그러다 보면 어려서는 철몰라서 모르고 늙어서는 늙어서 힘들고, 자는 거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나면 사는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남의 거를 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탐을 했다 하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 도둑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묘한 도리가 있거든요. 자기 주인공더러 '굶기든지 살리든지 또 먹이든지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합니다.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살면 바로 뿌리가 자기 싹을 살리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리기 이전에 벌써 마음부터, 겉마음이 벌써 남의 걸 탐내는 마음부터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탐내지 않는다면 스스로서 복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꼭 복이 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불망어계" 한 것은 일체 거짓말하지 말고, 입을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입을 조심해라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 거짓말 한 걸로 인해서 수십 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으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수십 번을 해야 돼요, 그걸 메우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옥이 더 어디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옥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형제나 친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엇각이 되고 안 보려고 하고 이럴 때, 그때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쪽에서는 이쪽이 잘한다고 그러고 이쪽에선 이쪽이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자비한, 바로 사랑하는 고운 마음씨죠.

그러니까 이 오계도 말만 듣고 그냥 아무렇게나 넘긴다면 그냥 오계 받으나 마나죠. 그래서 전에는 불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또 남의 여자 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유하게 했어요. 그걸 바꾸어서 '과음하지 말라. 내 생명같이 아껴라. 내 몸속에도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아서 되겠느냐. 또 죽은 고기를 먹을 때는 그것도 관하면 보살행이 돼요. 죽은 고기는, 즉 말하자면 몸으로 먹으면 생명을 돋워 주니까 약이 되고 그 영혼은 건져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려면 그것부터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몸 하나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공생이 아닌가.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도리를 모르면 파워가 생길 때가 있어요. 파워가 생길 때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놈은 살고 지는 놈은 죽는다는 얘기죠. 죽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살이 굳어져요. 살이 굳어지면 그게 암이 되죠. 왠 줄 아십니까.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박사 학위를 따고도 심성 의학으로서의 이 도리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를 모르니까 고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50%는 본인들이 해야 하고 50%는 의사한테 맡겨라. 의사한테 맡기되 맡길 것만 맡기지 아무거나 맡기지 말라, 또. 외려 멀쩡했던 사람을, 그대로 두면 다 이 머리에, 골수에도 물 빠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는 바로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다…. 이렇게 자기 형체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남에게 그 몸뚱이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 다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50%는 내가 마음

☞ 22면으로 계속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